제 78호 개별 지도하기 3. 학습센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노력은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지도하기가 보통 힘겹지 않습니다. 전자는 약간의 개별지도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후자는 개별지도를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두 부류의 성적이 똑 같이 중하위권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대책 없는 상황을 몇 차례 겪다 보면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하지 못한다"는 격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다 큰 성인인데 배우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면서 개별지도를 포기하게 되지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지도를 각별히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교수님의 지도가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항상 잘하셨던 교수님들이 자기들과 무관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마치 외계인의 언어를 대하듯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또래 학생(peer)들로부터 쉽게 잘 배운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이 바탕이 된 학습센터(learning center)를 추천합니다. 학습센터는 대학의 정식 기관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공학기초 등 분야별로 학습센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센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논문을 써야 하지만 글 솜씨 없는 대학원생들과 (가끔) 교수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학습센터 코치는 학습센터에 근무하게 해서 당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게 하고 신참 코치는 지정된 학생과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도하게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둘 셋씩 조를 이루어 같이 공부하게 하면 코치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팀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개인별로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학습 코치로 활용하면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더 확실히 배우게 되고, 지도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거나 연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니, 사실상 개별지도가 필요한 양극의 학생들을 다 커버하게 되는 셈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습센터를 위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학습센터가 없으면 학습센터 설립을 학과나 대학에 권의 하시고, 만약 학습센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적극적

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한다는 의미는:
(1) 숙제나 시험 답안지를 연구실이나 도서실에 비치하거나 웹-페이지에 올리는 대신 학습센터로 보내셔서 학생들이 학습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2) 참고서나 강의 노트를 학습센터에서 보관해서 학생들이 아무 때나 참고할 수 있게 한다.
(3)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리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글쓰기 학습센터를 방문하라고 권한다.
(4)학생 상담 시간(office hour)을 교수님 연구실 대신 학습센터에서 보낸다.

미국의 경우 학습센터는 학생들로부터 무척 좋은 호응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학습센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벽, 2000